

<행복했던 4월의, 일산 백석중에서의 교생 실습 소감문>

성균관대 한문교육과

◆ 첫째 주 (4월 1일 월요일 ~ 4월 5일 금요일)

아이들과 친구 되기

백석중학교 2학년 5반이 내가 맡은 반이었고 한문 선생님이신 방형원 선생님의 반이었다. 담임선생님을 따라 처음 교실에 들어가서 교탁에 섰을 때, 매우 어색했고 생각보다 떨어져 아이들의 얼굴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아마 더듬더듬 어색한 존댓말로 내 소개를 했고 만나서 반갑다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다. 그리고나서는 혼자 앉은 남학생 옆 빈자리로 가서 아침 조회를 함께 듣는 것으로 내 교생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내가 있는 교실을 신기해하면서도 낯설어하는 것 같았다. 옆에 앉은 동준이와 앞에 앉은 성수, 그리고 그 짝꿍 수경이가 나에게 관심을 가장 먼저 표했고 다른 친구들도 나를 끊임없이 쳐다보고 말을 붙여오곤 했다. 이렇게 많은 관심과 애정은 처음 받아본 것 같다. 처음에 나는 교무실에 앉아 출석부를 보며 우리 반 아이들 이름을 외우려고 했으나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곧 깨닫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마다 아이들을 붙잡고 이름을 하나하나 외워갔다. 우선 내게 다가오는 학생들의 이름은 쉽게 외워졌다. 이름을 부르고 교실에서 직접 부딪치며 아이들을 기억해나갔다. 이틀 만에 이름을 거의 다 외운 것 같다. 우리 2학년 5반은 수업태도 꼴등 반이라고 하던데 그래서인지 애들이 정말 활발하게 놀고 정도 많고 나에게 살갑게 다가왔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1, 2학년이 단체로 수학여행을 가서 학교에 가서도 아이들을 만날 수 없었다. 정말 신기한 게, 딱 이틀 만난 게 다였는데도 어느새 정이 들었는지 우리 반 아이들이 벌써 보고 싶어졌다.

출퇴근 적응

백석중에 교생은 총 4명이었고 4명 모두 여자였다. 나랑 동갑인 친구 한명에 두 명의 대학원생 언니가 있었다. 세 명은 2학년에 한 명은 1학년에 배치되었고 미술, 국어, 영어, 한문으로 과목도 다 달랐다. 우리 학교는 특이하게 교생실이 따로 없이 교생들이 각각 다른 교무실에 자리를 배정받았는데 나는 우리 담당 선생님이 계신 4층 2학년부 교무실로 가게 되었다. 교무실에는 2학년 부장이신 도덕 선생님, 성균관대 역사교육과 선배이신 역사 선생님, 아내 분이 성대 한문교육과를 나오신 체육 선생님, 나의 지도교사 선생님이신 한문 선생님 이렇게 네 분이 계셨다. 2학년 부 교무실은 아담하고 선생님들 간의 분위기도 굉장히 화목했고 다들 인상도 좋으시고 친절하셨다. 무엇보다 나를 실습생이 아닌 동료 선생님처럼 대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8시 10분까지 출근하고 4시 30분에 퇴근하는 선생님들의 일과를 그대로 따라 출퇴근을 하게 되어 있었으나 항상 일찍 출근하시는 우리 교무실 선생님들을 따라 나도 8시에 맞추어 출근을 하게 되었다. 단정한 차림을 위해 길이가 무릎

까지 오는 치마와 블라우스나 재킷 등을 갖춰 입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출근한다는 표현을 쓰니까 처음이라 어색하면서도 직장인이 된 듯한 기분이라 신나기도 했다. 학교를 가다보면 등교하던 학생들이 인사를 해왔고 그럴 때면 나도 역시 반갑게 인사를 하며 학교로 갔다. 학교에 도착해 선생님 용 슬리퍼로 갈아 신고 출근부를 작성하고 교무실에 올라가 선생님들께 인사를 하고 내 자리에 앉아 가방을 풀고 사물함에서 노트북을 꺼내 전원을 켜 놓고 커피를 타마시고 하루를 준비하는 내 모습은 영락없는 선생님이었다. 6교시인 날은 3시, 7교시인 날은 3시 50분에 수업이 다 끝나지만 선생님들의 퇴근은 4시 30분이기 때문에 방과 후에는 항상 교무실에서 교생 업무를 보았다. 그날그날의 실습일지를 정리하고 수업 자료를 준비하곤 했다. 4시 반이 되어 퇴근을 하고 집에 가면 특별히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직장인처럼 온몸이 노곤했다. 마치 학교로 인턴을 다니는 듯한 느낌이었다.

◆ 둘째 주 (4월 8일 ~ 4월 12일)

수업 참관

수업 참관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먼저 나의 담당 교과목인 한문 수업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한문 수업은 2학년 3반부터 9반까지 일곱 반만 일주일에 세 시간 씩 듣는다. 나머지 반은 한문 대신 정보 과목을 배운다고 했다. 7반이 모두 일주일에 세 시간 씩 한문 수업을 하니 우리 선생님의 수업시수는 일주일에 스물 한 시간이었다. 월요일은 가장 바쁜 날이라 수업이 다섯 시간이나 들었다. 일주일 동안 한문 교과서의 소단원 하나를 나가는데, 그것을 삼 차시에 나누어서 1차시에는 신습 한자, 2차시에는 본문 학습, 3차시에는 보충자료인 부수학습지로 수업을 하신다. 신습 한자는 한자 카드를 활용하였는데 칠판에 한자를 붙여놓고 각 한자에 대한 음과 뜻을 풀이한 후 학생들이 한문 시간 내에 16개의 한자를 모두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한자에 대한 풀이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수업시간 내내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학생들이 새로 나온 효율적으로 한자를 외울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선생님의 철학은 전통적인 방식이 어찌 보면 가장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칠판에 붙어 있는 한자를 큰소리로 몇 번씩이나 따라 읽고 또 암기하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본문에 필요한 한자를 익혀나갔다. 2차시 수업 때에는 학생들이 1차시에 배운 신습한자들로 구성된 본문을 공부하게 되었다. 짧은 문장에 대해 관련된 한문 문법을 설명하고 풀이를 해보고 또 고사성어가 나올 경우 성어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셨다. 본문 수업에는 ppt를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판서로 보충설명을 하고 수업 막바지에는 몇 사람을 임의로 시켜 배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였다. 일주일에 하나의 소단원을 나가다보니 교과서만으로는 내용이 부족했다. 그래서 담당 선생님께서는 부수를 따로 공부할 수 있는 부수학습 자료를 찾아내셔서 3차시에는 부수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하셨다. 한 장 짜리 프린트를 나눠주고 각 부수를 칠판에 쓰고 음과 뜻을 풀이한다. 학생들은 프린트에 따라 쓰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수업시간동안 채운다. 그리고 나서는 각자 공책에 빙고판을 만드는데, 학생들은 공부한 부수가 포함된 한자를 교과서 뒷면 한자 정리표를 보고 찾아서 빙고판을 채웠다. 선생님이 한자를 부르면 해당 한자를 빙고판에서 지워나가고 1줄이 완성되면 손을 들어 사탕을 선물로 받아갔다. 이렇게 한문 수업은 일주일에 세 번씩 같은 일정한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행정 잡무

학교에서의 행정업무는 교사들이 수업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주장의 대표적인 이유이다. 이게 얼마나 맞는 말인지 교무실 생활을 하며 뼈저리게 체감할 수 있었다. 휴연, 음주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35명이 작성한 13문항의 5개 대답지를 일일이 세서 통계를 내야 했고 수학여행 소감문, 친구사랑의 날 글쓰기, 과학의 달 글쓰기, 그림 그리기 등의 활동을 하면 그것을 교사가 다 읽고 매번 잘 한 학생을 추려서 올려야 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 보조교사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에게 직접 활동비를 걷고 추합해서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야 했다. 스포츠클럽의 임의지도교사가 되기도 하고 근무 외 시간에 생활지도도 하게 되어 있었다. 선생님들은 수업지도와 학급관리만으로도 양이 정말 많은데 다른 잡무들까지 처리해야하니 정작 중요한 수업지도와 학급관리에 충분한 시간을 쏟지 못하는 듯이 보였다. 이 때문에 선생님들은 시간에 쫓겨 아이들에게 여유를 가지고 다가가고 살피지 못하게 된다.

사건 사고

백석중학교는 청소년 문제가 거의 없는 편이었다. 교내에서 담배 피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으며 수학여행을 갔을 때에도 술, 담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남자애들이 여럿이 무리지어 노는 것을 본 적은 있으나 적어도 학교 내에서는 일진처럼 권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일을 본 적이 전혀 없다. 다만 친구끼리 싸우고 교무실에 불려오는 친구들이 간혹 있었다. 한 사건에서는 두 명의 남학생이 카카오토티에서 댓글로 시비가 붙은 게 발단이었다. 온라인에서 싸우다가 결국 오프라인에서 장소를 정해 제대로 결판을 보기로 했고 그것을 지켜보던 친구들까지 가세해 방과 후에 학교 근처에서 모이게 되었다. 아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정말 싸우려고 간 것은 아니었는데 분위기가 싸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한 명의 이마가 철문에 부딪혀 찢어지게 되었다. 그 학생은 병원에 가 이마를 꿰매었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서로 싸우다가 일어난 일이고 고의로 상처를 낸 게 아니라서 병원비를 물어주는 식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두 학생은 교무실에 불려와 부장 선생님께 지도를 받았다. 먼저 사건의 상황을 각자 진술서에 상세히 쓰고 반성문을 서로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게 하였다. 반성문을 두 학생에게 서로 읽어보게 하고 악수로 화해를 시키고는 사건은 마무리 되었다. 두 학생은 그 이후로 별 문제 없이 잘 지냈다. 또 다른 세 명의 남학생들은 돌아가면서 남자화장실에서 바지를 벗기며 장난치다가 지나가던 선생님께 걸려서 교무실에 불려오게 되었다. 이 학생들은 재미있어서 장난으로 한 거라고 변명했지만 엄연히 성추행의 문제로 붙어질 수 있는 풍기문란 행위였고 부장 선생님께서는 반성할 때까지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에서 손 들고 벌을 서게 하셨다.

조금 다른 예시로 학생들은 짧게 줄인 치마, 염색한 머리, 통을 줄인 교복 바지 등등의 이유로 교무실에 불려와 벌점을 받거나 경고를 받고는 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이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지도를 무시하고 짧은 치마와 통이 좁은 바지를 고수했다. 또 우리 담당 선생님은 일주일에 지각을 세 번 이상 한 아이들에 대

해서 학부모님께 직접 전화를 드려 지각 사실을 전달하고 아이가 지각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구했다. 이렇게 교무실은 여러 가지 문제와 사정들을 가진 학생들이 들락날락하며 지도를 받는 생활 지도의 공간이기도 했다.

◆ 셋째 주 (4월 15일 ~ 4월 19일)

수업실습

다양한 수업을 참관해보았고 이제 내가 교실 앞에서 서서 선생님께서 수업을 해야 할 때가 왔다. 그동안 다양한 과목의 각기 다른 선생님들의 방식을 보면서 배운 게 많았지만 막상 내가 수업을 할려니까 막막했던 게 사실이다. 수업 차시와 단원이 정해졌고 나는 담당 선생님이 들어가시는 일곱 반에 모두 한 번 씩 들어가게 되었다. 그 중에 한 번은 공개수업을 하기로 되어있었다. 본문 내용은 굉장히 짧고도 간결했다. 선생님과 상의를 해 본 결과 백석중이 사용하던 한문교과서는 좋은 교과서라고 보기 어려웠다. 한문교육과인 내가 보기에 교과서가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내년부터 다른 교과서로 수업을 하신다고 하니 다행이었지만 우선은 이 교과서로 준비를 해야 했고 나는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예전에 내가 수업 들던 때와 크게 다른 점이 라면 바로 PPT의 활용 정도였다. 우리 때는 판서를 필기하거나 교과서에 밑줄을 그으며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는 PPT로 많은 자료가 제시되고 칠판 판서는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한문 과목은 한자를 직접 쓰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필순이나 모양을 더 익히려는 뜻에서 전통적인 판서 방식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림 자료나 만화 자료 혹은 직접 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내용 설명 부분은 PPT로 보여주기로 했고 짧은 한문 문장이나 한자어의 짜임 등은 칠판에 적어서 설명하기로 작전을 세웠다.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각종 시각 자료와 효율적인 방법을 찾느라 정말 고심했던 것 같다. 마침내 수업지도안이 나오고 자료도 준비했고 선생님께 한자 카드도 빌려서 준비를 완성했다. 첫 수업 전날에는 그 어느 때보다 떨렸던 것 같다. 혼자서 교실에 남아 미리 45분 동안 준비를 해보고 집에서 각종 연습을 해봤는데 여전히 첫 수업은 뭔가 감이 안 잡히고 막막한 느낌이었다. 처음 들어간 2학년 9반에서 나는 교탁 앞에 섰다. 긴장해서 인지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나는 내가 준비한 수업을 마치 프레젠테이션을 하듯 쪽 이어나갔다. 교생선생님이라고 잔뜩 기대에 차있고 수업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던 아이들이 내가 수업을 삼십분 쯤 이렇게 진행하자 슬슬 지루해하는 표정을 보였고 나는 그것을 보자 또 자신감이 확 떨어져 굳은 채 수업을 마무리해나갔다. 결국 내가 45분~50분 사이로 시간을 맞춰 준비해간 수업은 35분 만에 끝났고, 숙제로 내주려던 부분을 함께 풀 수밖에 없었다. 첫 수업을 이렇게 마치고 나자 정말 혼란스러웠다. 준비해 간 내용이 부족하지 않았음에도 왜 이렇게 시간이 남았을까, 아이들은 왜 이 재밌는 내용을 지루하게 들었을까 등등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 참관하던 담당선생님께서서는 칠판에 필기를 할 때 좀 더 줄을 맞춰서 보기 좋게 깔끔하게 필기하는 게 좋겠다고 피드백을 해주셨고 바로 이어서 다음 수업을 들어가게 되었다. 사실 우리 반 수업이었는데 자신감을 조금 상실했던 나는 이번 수업도 그럭저럭 비슷하게 해나갔고 수업을 마치자 온몸에 기운이 빠졌다. 내가 생각했던 수업은 이게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고 길을 잃은 듯했다. 다음날이 되어 세 번 째 수업을 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역시나 교생 선생

님이 수업을 한다는 얘기에 종이 치기도 전에 자리를 잡고 앉아 수업들을 준비를 해놓았고 여러 친구들이 노트북 연결이나 칠판 정리 등 수업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나는 이제 수업을 완벽하게 전달해야겠다는 부담을 내려놓았고 드디어 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같은 수업을 세 번씩이나 해서인지 이제 어디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면 될지 어떻게 내용을 전달해야 아이들이 알아듣기 쉬운지 감이 잡히던 것이다. 필기도 깔끔해졌고 수업 흐름도 더 유연해졌다. 이렇게 수업에 여유가 생기자, 수업 내용이 아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스크린과 칠판을 쳐다보며 말을 내뱉었던 내가 이제는 나를 쳐다보고 있는 아이들의 눈을 마주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을 바라보고 아이들의 대답을 기다려주며 대화하듯이 그들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있었다. 45분이라는 긴 시간의 수업을 온통 지식적인 얘기로만 채우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걸 느껴서 수업 내용에 관련된 농담을 던지기 시작했고 그럴 때마다 조금씩 지쳐가던 아이들이 생기를 되찾고 다시 수업에 집중하였다. 이렇게 아이들과 소통하며 수업을 해나가자 남았던 시간이 이번엔 딱 맞았다. 다음 수업, 그 다음 수업은 갈수록 더 좋아졌다. 심지어 다섯 번째 수업에서는 아이들의 얘기도 많이 듣고 거기에서 파생된 얘기를 덧붙여 해주다보니 수업시간이 조금 모자랄 정도였다. 역시 첫 날과는 분위기가 너무 달랐다. 내 마음에 여유도 생겼고 중요한 것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내가’ 수업을 하는 게 중요하게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느꼈다.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자 수업 내용 역시 풍부해졌고 학생들의 태도가 더 능동적이 되었으며 선생님인 나 역시 수업을 너무나도 즐겁게 대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두 번째 날의 세 시간의 수업이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자 나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도 생겼고 미묘하지만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나에 대한 태도가 더욱 우호적으로 변한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결국 수업의 관건은 교사와 학생들의 소통이었던 것이다. 나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배우고 다음 날 공개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긴장되는 자리였지만 내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학생들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하며 수업을 원활히 해나갔다. 여러 번 수업을 직접 해보니까 정말 막막했던 수업에 대해 감이 잡혔다.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내용을 전달해야 효율적인지,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해야 가장 집중도가 유지되는지, 아이들이 어떤 방식을 흥미롭게 생각하는 지, 어떻게 해야 산만한 아이들을 집중하게 하는 지 등등 실전 경험을 하며 여러 가지 노하우가 조금이나마 생기는 듯했다. 수업이란 것은 내가 대학에서 해오던 발표와는 정말 차원이 다르다. 수업은 내가 준비한 것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었다.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 같은 내용도 달라질 수 있었고 45분 동안 35명의 아이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야만 했다. 그래서 결코 수업이 만만치 않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고 교사들이 대단하다고 생각되었다. 금요일까지 마지막 수업을 마치자 조금 더 수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았고 한편으로는 부담되었던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지기도 했다. 부족한 선생님이었지만 내가 가르친 내용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학생들과의 관계

나는 2학년 5반 아이들을 만난 것을 교생실습 중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정이 많고 살갑고 애교도 많은 아이들과 지내며 나는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아침 시간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자신이 새로 산 운동화, 들고 있는 노래, 자기가 생각하는 롤 모델, 어디 놀러 갔

다 온 이야기 등 각종 주제로 자기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었다. 나에게 관심을 끌고 또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에게 감독과 통제를 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지 않았다. 친구들과처럼 장난도 치고 내 이야기도 하며 편하게 다가가자 학생들은 나에게 정말 친근하게 다가와 주었다. 나는 점심 시간이 가장 재미있었는데 밥을 먹고 나면 아이들은 주로 교실 뒤편 사물함 앞에서 게임을 하고 놀거나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고 놀았다. 나는 학생들이 실내화 던지기, 종이비행기 접어 날리기 등 각종 창의적인 방법으로 노는 것이 너무 신기했고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칠 위험이 있지 않은 한은 제재하지 않고 나도 같이 어울려 놀았다. 학생들에게는 자신을 알아주길 바라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가장 큰 것 같았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항상 와서 자랑하였고 그러면 나는 들킨듯 칭찬을 해주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들의 뿌듯해하는 얼굴을 바라보는 건 너무 즐거웠다. 사실 담임 선생님께서 조금 엄하고 무서우시며 잘 웃지 않는 편이어서 그런지 아이들은 내게 정말 많이 정을 붙였다. 나는 학생들을 보면 그 순수함에 감동받았고 그래서 항상 자연스레 웃는 얼굴이었다. 아이들은 각자만의 개성이 너무 뚜렷했고 당당해 보였고 눈치 보거나 계산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솔직했고 어찌 보면 냉정했고, 있는 그대로만을 말했고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동시에 착하고 여렸고 예민했고 순수했고 감수성이 풍부했다. 나는 이런 아이들이 각자 자신만의 매력을 쭉 지켜나가길 기대했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칭찬해주고 알아봐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했다. 그래서 나는 한 달 동안 대단한 무언가를 가르치고 변화를 주기 보다는 그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는 선생님이 되는 것을 택했다. 조금은 위엄이 없었을 지는 모르지만 학생들은 친구처럼 장난을 치면서도 전혀 악의가 없었고 또 예의를 지키며 대해주었다. 내가 학생들을 좋아하고 관심가지는 만큼 아이들은 그걸 알아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출퇴근 할 때 백석중을 보면서 이제 내가 중학교 때 삼년을 배운 학교가 아니라 한 달 동안 내가 교생 선생님이로서 가르쳤던 학교로 기억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 넷째 주 (4월 22일~ 4월 26일)

학급 지도

나는 지식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이나 감성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이상적이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다. 학교는 공부만 가르치는 각박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서에도 도움이 되고 성품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되는 곳이 되어야만 한다. 나는 조희 종례를 맡게 되었을 때가 기회라고 생각했다. 피해가 안가는 선에서 색다른 조희를 해보고 싶었다. 물론 종례도 활용하고 싶었지만 종례 때는 아이들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뵈어서 전달사항 전달하고 주변과 청소당번 호명하고 자기 자리 주변 정리만 시키고 인사하고 마무리해야 했다. 수요일 아침에는 시를 읽어주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말이 가지는 영향력을 크게 믿는 편이다. 물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누구에게나 와 닿는 건 아니지만 지나가듯 한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시를 읽는 게 특히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시집을 뒤적이며 시를 고르게 되었는데 이게 또 쉽지 않은 일이었다. 지금 내 상황에 나에게 와 닿는 시가 아닌, 중학생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종교적 색채가 없으며, 강요

하는 말투도 없어야 하고 이해하기에도 어렵지 않은 시를 찾으려고 무척 노력했다. 류시화 시인이 엮은 시집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에서 <나는 배웠다>라는 시를 찾아냈고 아침 윤독시간에 5분을 남기고 전달 사항을 전달한 후 시를 소개하고 낭송해주었다. 웃고 장난칠 지도 모른다는 예상과는 달리 아이들은 내가 읽어주는 시에 귀 기울였고 그들의 표정에서 사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낭송이 끝나자 아이들은 박수로 화답해주었고 쉬는 시간에 “선생님, 감동적이었어요.” 라던 아이들의 반응을 마주할 수 있었다. 생각보다 아이들은 순수했고 감수성이 풍부했고 그래서 더욱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졌다. 목요일에는 내가 좋아하는 피아노곡을 들려주기로 했다. 마침 비가 오는 날이어서 ‘비 오는 날의 정원’이란 제목의 피아노곡을 노트북을 연결해 들려주었다. 그것을 들으며 자습하는 아이들은 꽤 숙연해보였고 그걸 바라보는 나는 신기하고도 뿌듯했다. 피아노를 잘 치는 우리 반 아이가 와서는 제목을 묻기도 했다. 마지막 날에는 내가 정말 해주고 싶었던 책속의 구절을 읽어주었는데, 그것은 각자 각자가 세상에서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이야기였다. 우리 2학년 5반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특별함과 소중함을 깨닫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길, 자신감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이런 활동들이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갔을 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마음에 깊이 박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담임선생님이 말씀해주셨듯이 학생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정말 신선했을 것이고, 아이들의 맑고 순수한 그 마음에 이런 신선한 자극은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무리, 아이들과의 이별

마지막 주가 되어 이번 주가 끝나면 우리 반 아이들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괜히 아이들 앞에 서는 게 어색해지는 기분이었다. 마음이 조금해지고 울적한 기분이 들고는 했다.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으로 남아야겠다는 책임감이 컸고 또 삼주 동안의 내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학생들에게 그들을 이해해줄 수 있고, 같이 이야기 할 수 있고 장난도 칠 수 있는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그 점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큼 아이들과 가까워진 것 같았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나를 생각해보면 많은 도움이 못 된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다. 잘못되거나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는 좀 더 따끔하게 지도했어야 했는데 싶기도 하고 내가 충분히 못 챙겨준 것 같은 아이들에게도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떠난다고 생각하니 학생들 하나하나가 다 눈에 밟혔고 나는 결국 35명의 아이들에게 카드를 썼다. 시험기간 대비 비타민과 초콜릿과 함께 선물 포장을 해놓고 나니 이제야 실감이 났다. 처음에는 서로 남이던 35명의 아이들이 이제는 절대 잊을 수 없는 나의 첫 제자가 되었다니 신기하고도 몽클했다. 금요일 7교시가 끝나고 종례를 하러 들어가 준비한 선물과 편지를 한 명 한 명 나눠주었다. 예상대로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읽어보고 서로의 편지를 비교하기도 했다. 그럴까봐 편지에 쓴 내용 길이를 비슷하게 하려고 애썼었는데, 역시나였다. 종례에 들어가 내가 한달 동안 느낌 소감을 편지 형식으로 읽어주었다. 우리 반은 태도도 꼴등이고 활기차게 정말 잘 노는 반이고 재밌는 아이들도 많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도 특별했다. 슬픈 분위기이긴 했지만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며 웃으며 편지를 다 읽었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 하지만 끝나고 나자 아이들은 여실히 아쉬운 표현을 해왔다. 나에게 반 전체가 쓴 쪽지를 붙인 판자와 케이크와 ‘종아리 선생님 사랑해요’라는 플랜카드

를 전해주었고, 몇몇 아이들은 따로 쓴 편지와 선물을 전해주었다. 같이 사진을 찍고 내 주위를 둘러싸며 아이들은 가지 말라며, 담임 선생님이 되어달라며 각종 애정표현을 해주었고 헤어짐이 너무 아쉬워 참았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내게 잊지 못할, 너무나도 행복했던 4월을 선물해준 우리 백석중 2학년 5반 아이들에게 너무 고맙고 지금도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고 아련하다. 마지막 교생 날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허전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지금도 반 전체로 카카오톡을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그토록 허한 느낌은 꽤 오래 지속되었고 아직도 아이들 생각을 하면 아련하고 애뜻하다. 이렇게 나의 교생실습은 긴 여운과 소중한 추억을 남기며 마무리되었다.